

**사업체 매매**  
오렌지카운티 터스틴·어바인 지역에서  
성업중인 중식당(한국식/미국식)  
리스기간 5년 이상/ 순이익 2만불  
**(949) 501-8555 Leah Ivy Chang**

**부동산 · 경제**  
BUSINESS · REAL ESTATE

**전 당 포**  
LC3019-0990  
가주 최대 규모 / 최고 가격 보장  
한인 최초 감정사 / 절대 비밀 보장  
각종 명품, 귀금속, 시계  
**(714) 647-0005 / (714) 647-0007**  
318 W. 4th St., Santa Ana, CA 92701

**미 12월 소비자신뢰지수 대폭 하락**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가 12월 88.6으로 92.9로 하향 조정된 11월보다도 크게 떨어졌다. 이는 경제학자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악화된 수준이다.

지난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컨퍼런스 보드는 전날이 같은 12월 소비자신뢰지수를 발표했다. 이는 연말 연휴 시즌을 앞두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미국인들 사이에 낙관론이 후퇴하고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비 지출은 미국 전체 경제 활동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소비자신뢰지수 하락은 경제에 불길한 징조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이미 큰 재정적 타격을 받은 많은 소매업자들, 항공사들, 식당 등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상무부는 지난주 미국의 11월 소매 판매가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후 1.1% 감소해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으며, 대부분의 예상보다도 더 나빠졌다고 발표했다.



▲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가 크게 떨어졌다. 사진=shutterstock

현재 기업 및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 지표도 지난달 105.9에서 12월 90.3으로 크게 떨어졌다. 소득, 사업 및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단기 전망은 11월 84.3에서 87.5로 소폭 상승했는데, 이는 최근 코로나19 백신이 승인받은 영향 때문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의회를 통과한 9,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 법안이 옮겨올 소비자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 11월 기존 주택 판매 감소**

미국 기존 주택 판매량(Existing-home sales)이 5개월만에 소폭 감소했다.

전미부동산중개협회(NAR)는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통계에서 11월 기존 주택판매 건수가 계절 조정 기준 669만건으로 전월 대비 2.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532만건 대비 25.8% 증가한 것이다.

11월 평균 기존 주택 가격 중간값은 31만80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6% 상승했다. 기존 주택가격은 11월 미 전역에서 상승했다.

11월말 기준 기존 주택재고는 128만 건으로 전월 대

비 9.9%, 전년 대비 22% 감소했다. 이는 현재 속도라면 2.3개월이면 모두 판매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는 1982년 NAR이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다.

NAR은 기존 주택이 11월 통상 21일만에 판매됐다고 전했다. 전년 동기에는 38일만에 판매됐다. 특히 11월 판매된 기존 주택 중 73%가 한달도 안 돼 판매됐다.

NAR는 2021년에도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3%대를 맴돌고 주택 가격 연평균 상승률이 8.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주택 담보대출 금리는 낮아졌지만 주택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해 최초 구매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 2024년 목표 완성차 생산 추진**

자동차 산업을 향한 애플의 야망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자율주행과 배터리 기술을 발판 삼아 완성차 업체 대열에 걸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22일 '한겨레'에 따르면 애플은 2024년을 목표로 자체 설계 배터리를 탑재한 승용차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부터 가동해왔던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타이탄' (Titan)의 연장선상이다. 애플의 자동차 양산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로보택시 사업에 진출한 구글 웨이모 등을 염두에 두고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이 자동차 산업에 관심을 보인 지는 오래됐다. 기존에는 이미 주도권을 쥔 운영체제(OS)를 중심으로 영역을 넓혀왔다. 2014년 출시한 '카플레이'가 대표적이다. 카플레이는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스마트폰을 연계해 아이오에스(iOS)용 앱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 다만 같은 해 출범한 프로젝트 타이탄은 기술적 어려움 등으로 여러번 부침을 겪었다.

애플이 자사 브랜드로 자동차를 양산하게 되면 업계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애플은 기존 자동차 산업과 유사한 수직계열화 전략을 구사해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다른 테크 기업과 달리 차량을 위탁생산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다. 애플의 자체 배터리 기술에 대한 언급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구글 등은 다른 완성차 업체의 차량에 자율주행 솔루션을 얹고 있다.

자동차 양산은 투자 비용이 막대한 반면 수익을 내는데 오래 걸려 애플이 쉽사리 나서지 못할 거란 전망도 있다. 테슬라도 설립 뒤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기까지 17년이 걸렸다.

미래차 주도권을 둘러싼 기존 업계와 테크 기업 간 전선이 확장되고 있다.

**ONE GROUP REALTY**  
www.OneGroupRealty.com  
**부동산은 브로커, 찰스 리에게...!**  
Charles Lee/Broker Lic #01361071,01861239  
charleslee@onegrouprealty.com  
**성심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Charles Lee 714.614.2426**

**집** **집**

**특점** Bellflower - DUPLEX **특점** Hawaiian Gardens - Duplex

**UNDER CONTRACT** **UNDER CONTRACT**

2 BED + 2 BATH & 1 BED + 1 BATH 2,100 SQ.FT. (ESTIMATED)  
\*GROSS RENT: \$3,745 PER MONTH  
\*MONTH - TO - MONTH LEASE  
\*조용하고 안전한 지역 **\$756,000**

2 BED + 2 BATH & 1 BED + 1 BATH 1,168 SQ.FT. (ESTIMATED)  
\*GROSS RENT: \$2,340 PER MONTH  
\*MONTH - TO - MONTH LEASE  
\*Rent 잘 나가는 동네입니다. **\$558,000**

**Home for Sale**

**La Mirada - 단층 단독주택**  
4 Bed + 2 Baths 1,588 sq.ft. 6,295 sq.ft.  
\*La Mirada 골프장 근방 **\$639,000**

**Fullerton - 단층 단독주택**  
4 Bed + 2 Baths 2,228 sq.ft. 7,316 sq.ft.  
\*EXCLUSIVE ISLAND 주택단지!!! **\$1,099,000**

**LA HABRA - COMMERCIAL RETAIL / OFFICE LEASE**  
A. 900 SQ.FT. [OFFICE / RETAIL SPACE] \$1.35 PER SQ.FT.  
B. 700 SQ.FT. [OFFICE SPACE] \$1.25 PER SQ.FT.  
\* MODIFIED GROSS LEASE

**Fullerton - Gated Community 싱글홈**  
5 Bed + 3.5 Baths 3,466 sq.ft. 6,273 sq.ft.  
\*Million Dollar VIEW!!! **\$1,450,000**

**Buena Park - 단독주택**  
5 Bed + 3 Baths 3,118 sq.ft. 10,800 sq.ft.  
\*유명한 COUNTRY CLUB DR by Los Coyote Private Golf Course **\$1,199,000**